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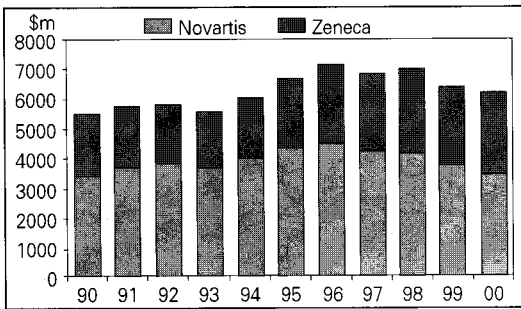


소폭 증감속 순위경쟁 치열

- 홍보부 -

■ 신젠타(Syngenta)

매출 62억2천만달러 · 세계시장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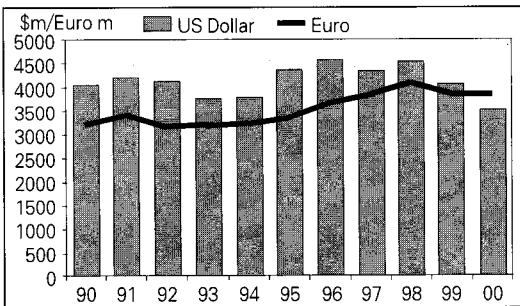


2000년 11월 노바티스 농업사업부와 제네카 농화학사업부 합병으로 탄생, 매출은 99년 63억8천5백만달러에서 2000년에는 62억1천8백만달러(비사업분 포함)로 2.6% 감소했다.

이는 제네카 27억5천9백만달러(+4.2%)와 노바티스 34억5천9백만달러(-7.5%)로 구성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세계 농약산업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90년 이후 매출증가율은 연평균 1.3%인 반면 95년 이후는 -1.4%이다. 약제별로는 제초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매출은 5.1% 감소했다. 비선택성제초제는 8.7% 증가한 반면 선택성제초제는 8.9% 감소했다. 살균제는 1.8% 감소하였으나 주력제품인 아미스타가 계속 성장하였으며 살충제는 8.4% 증가하였다.

■ 아벤티스(Aventis)

매출 35억3천만달러 · 세계시장 2위



매출은 유로화로 전년대비 -0.5%, 달러로는 35억3천4백만달러로 13.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세계 농약시장에서 2위를 차지, 99년말 아그레보와 룽프랑의 합병이후 1년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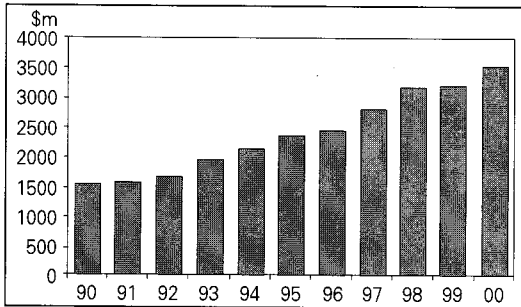
선도기업으로 정착한 것이다. 90년 이후 매출은 유로화로 연평균 1.7% 증가, 달러로는 -1.4%를, '95년 이후 평균성장율은 유로화로 연간 2.6%, 달러로는 -4.3%를 나타냈다.

약제별로 보면 지난해 총 매출의 37%를 차지한 제초제가 주력분야이며 매출은 주요 제초제의 저조한 판매로 16.8% 감소했다. 살충제는 전년대비 12.5% 감소로 총 매출의 27%를 차지했다. 살균제는 15.0%가 줄어 총 매출의 18%를 차지했으며 선도 살균제인 이프로디온이 22.6% 감소했다.



■ 몬산토(Monsanto)

매출 35억3천만달러 · 세계시장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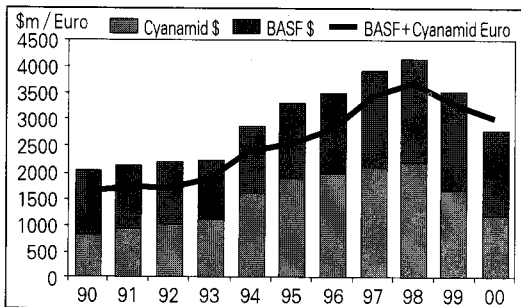
지난해 매출은 35억3천1백만달러로 9.9%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농약시장에서 99년도와 동일하게 3위를 차지한 것이다.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의 놀랄만한 성장으로 90년 이후 매출은 연평균 8.9% 성장, 95년이후는 8.5%로 약간 낮다. 농업부문은 몬산토 아래 독립된 사업으로 남아있으나 지난해 4

월 Pharmacia와 합병하여 Pharmacia Corporation을 형성하고 있다.

약제별로는 글라이포세이트가 우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농업에는 26억2천5백만달러 만큼 사용, 6% 증가하였고 잔디와 가정원예용으로는 2억1천5백만달러 47%가 증가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또 가격면에서는 감소되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으나 물량으로는 16%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의 특허 만료로 인한 수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타사와 공급계약을 맺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알라와 부타 등 다른 선택성 제초제를 포함한 몬산토의 다른농약 매출은 지난해 6억9천1백만달러로 18% 증가했다.

■ 바스프(BA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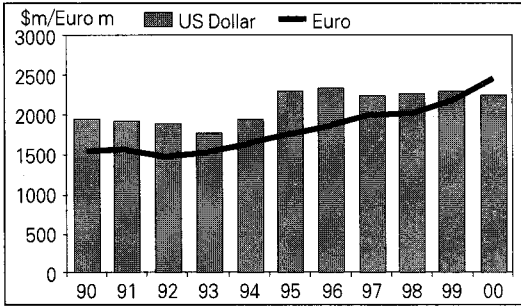
매출 27억달러 · 세계시장 4위



2000년에 사이나미드를 인수하고 7월 1일부터 통합판매를 시작했으며 매출은(사이나미드의 6개월 매출 포함) 24억2천8백만유로(22억4천8백만달러) 였다. 그러나 통합사업 연도 총 매출은 전년보다 20.7% 감소한 27억9천5백만달러이며 유로기준으로 2000년 사업 매출은 8.9% 감소한 30억1천9백만유로였다.

즉, 바스프는 16억달러(-13.8%), 17억2천8백만유로(-1.0%)의 매출을, 사이나미드는 11억9천5백만달러로 28.4%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세계 농약시장의 4위이다. 90년 이후 바스프와 사이나미드의 매출은 연간 3.2%(\$) 증가하였으며 95년 이후 평균성장율은 -3.5%였다. 약제별로는 제초제가 바스프와 사이나미드의 통합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하나 사이나미드의 지속적인 사업 악화로 99년도의 53%보다 낮다. 주력제품에는 벤타존, 펜디메탈린, 디캄바 등이 있다. 25%정도를 점유한 살균제에는 에폭시코나졸 및 크레속심-메칠, 디메쏘모르프 등이 있으며 살충제는 16%정도 차지하며 알파싸이피메스린 등이 있다.

■ 바이엘(Bayer)



총 매출액은 99년 21억7천8백만유로에서 2000년 24억5천6백만유로로 12.8%가 늘었으나 달러로는 99년 23억1천6백만달러에서 22억7천4백만달러로 1.8% 감소하여 99년도와 동일하게 세계 농약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90년 이후 매출은 달러기준으로 연간 1.5%, 유로기준으로 4.7% 증가하였으며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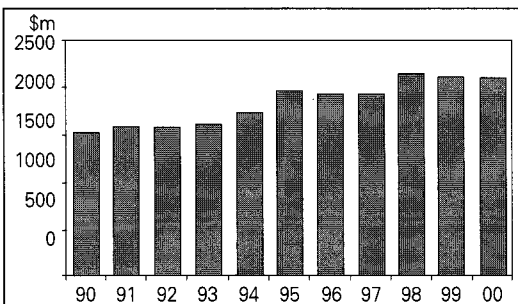
매출 22억7천만달러 · 세계시장 5위

년 이후는 달러로 연간 -0.5%, 유로기준으로 6.8%였다.

지역별로는 서유럽이 가장 큰 시장이나 지난해는 14%가 감소했다. 총매출의 23%를 차지한 북미지역은 7%정도 늘었으며 라틴아메리카는 브라질의 영향으로 6%늘었다. 극동지역은 31% 증가, 동유럽은 6% 정도 줄었다.

약제별로 보면 제초제가 가장 저조한 분야로 7.0% 감소하였으며 총매출액의 18% 차지했다. 살충제 역시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4.1% 감소했으며 단지 1.8%만이 감소한 살균제 분야가 성적 좋았다. 그러나 가정원예 및 특작분야는 매출이 20.2% 증가했다.

■ 다우 아그로사이언시스(Dow AgroSciences)



총 매출은 20억8천6백만달러로 평상시와 같다. 이는 그 양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낮은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세계농약시장 순위로 보면 99년도 7위에서 지난해 6위로 올라선 것이다. 90년 이후 매출은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으며 95년 이후는 1.2%로 부진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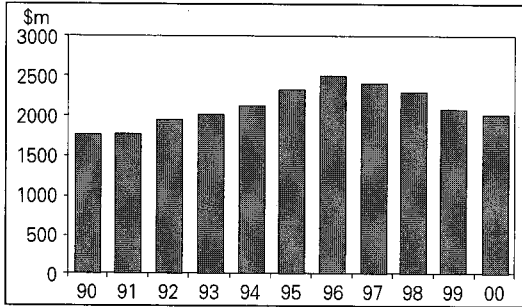
매출 20억9천만달러 · 세계시장 6위

지역별로는 서유럽, 동유럽, 극동지역 모두 매출이 감소했으나 북남미와 기타지역의 선전으로 만회했다. 약제별로 보면 선택성 제초제의 낮은 매출을 글라이포세이트의 선전으로 상쇄, 제초제의 매출이 안정적이었고 총매출의 58%를 차지하였으며 선도 제품으로는 트리플루라린, 클로피라리드, 플루옥시피르 등이었다. 살충제 역시 안정적이며 총 매출의 34%를 차지했다. 선도제품으로는 클로르피리포스가 있다. 그러나 단지 6%를 차지하는 살균제가 비교적 약하지만 이 부분은 2001년 3월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되는 롬&하스의 농약사업부 인수에 따라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듀폰(DuPont)

매출 20억1천만달러 · 세계시장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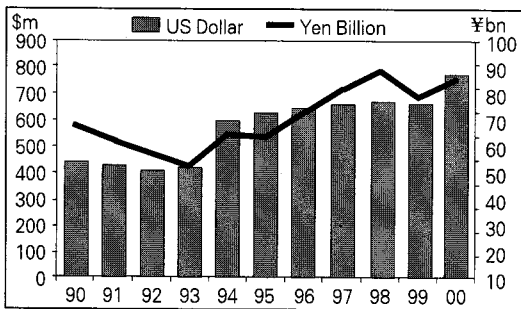
매출은 99년도 20억9천8백만달러에서 지난해 20억1천3백만달러로 4.1% 감소했으며 이는 96년 25억1천5백만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매출이 4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낮은 가격과 유전자변형작물과의 경합 및 부정적인 현재의 기업방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매출로 본 세계 농약시장 순위는

99년 6위에서 2000년에는 7위로 한계단 내려앉았다. 90년 이후 매출은 연평균 1.3% 증가했으나 95년 이후는 3.0% 감소했다.

약제별 매출을 보면 제초제가 비록 4.7%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듀폰의 제품군 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제초제의 반이상이 지난해 미국에서 제초제 저항성작물로 고통을 받았던 설폰닐우레아계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듀폰은 옥수수과 밀, 대두용 제초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살충제는 부분적으로 Bt 옥수수 및 면화와의 경합으로 인해 13.7%나 급격하게 떨어졌다. 살균제는 4.1% 감소했으며 선도 제품으로는 베노밀과 싸이목사닐, 후루실라졸 등이 있다.

■ 스미토모 케미컬(Sumitomo Chemical)

매출 7억8천만달러 · 세계시장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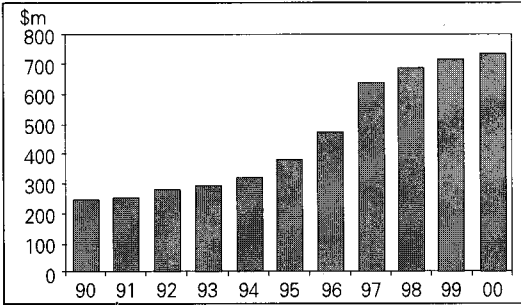
매출은 엔화기준으로 99년 7백66억6천2백만엔에서 2000년에는 8백41억1천2백만엔으로 9.7% 증가, 달러기준으로는 '99년 6억7천3백만달러에서 7억8천만달러로 15.9%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99년말에 Abbott 작물보호사업부를 통합한데 기인한 것으로 세계 농약시장 순위는 99년 11위에서 지난해는 8위

로 올라섰다. 90년 이후 엔화기준으로 연평균 2.7%, 달러기준으로 5.8% 증가하였으며 95년 이후는 엔화기준으로 7.1%, 달러기준으로 4.2% 증가했다.

약제별 매출은 살충제가 총 매출의 42%를 차지, 15.6%나 증가한 가장 중요한 제품이며 선도제품으로는 아세페이트, 페니트로치온 등이 있다. 제초제는 8.1%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단일 품목은 클레소딤이다. 1.6%가 증가한 살균제는 프로시미돈이 가장 성적이 좋고 디에토펜카브 등도 중요품목이다. Abbott 작물보호사업부 인수로 기타부분의 점유율은 지난해 15%로 증가, 매출은 66.7%나 증가하였다.

■ **막테심-아간(Makhteshim-Agan)**

매출 7억4천만달러 · 세계시장 9위



매출은 99년 7억2천만달러에서 2000년에는 7억3천8백만달러로 2.5% 증가했으며 세계 농약시장 순위도 99년 10위에서 2000년에는 9위로 한계단 상승했다. 90년 이후 매출은 연평균 11.6% 증가했으며 95년 이후는 14.3%로 크게 늘어났다. 농약은 역사적으로 Agan의 농약제조(제조제)와 Makhteshim의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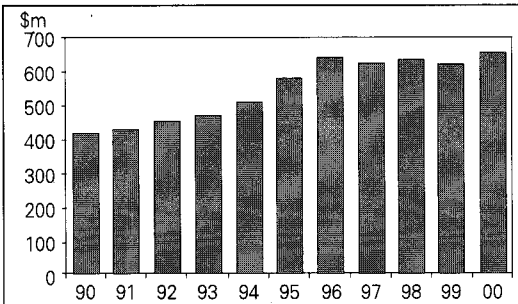
분야(살균제와 살충제)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두 회사가 98년 5월에 정식으로 합병, 지금의 막테심-아간이 탄생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가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43%로 늘어났다.

약제별로 보면 제조제는 매출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다소 감소한 선택성 제조제 매출은 글라이포세이트 호조로 상쇄, 전체적으로는 1.9% 증가했다. 살충제는 2000년에 3.4% 증가하였고 최근에 최초 등록 살충제인 Rimon(novaluron)을 출시하였다. 살균제는 유일하게 감소(-3.2%)한 부분이며 기타약제는 비록 1천8백만달러로 작지만 2000년에 80% 증가한 부분이다.

■ **에프엠씨(FMC)**

매출 6억7천만달러 · 세계시장 10위



매출은 99년 6천만달러에서 2000년에는 7천만달러로 16.7%증가한 특수품목 매출을 포함, 99년 6억3천2백만달러에서 2000년 6억6천5백만달러로 5.2% 증가했다. 세계농약시장 순위는 99년 12위에서 지난해는 10위로 두계단 올라섰다. 90년 이후 매출성장은 연평균 4.8%이었으나 95년 이후 5년간 매출성장

은 연간 2.4%로 더디어졌다. 지역적으로는 북미와 남미가 11.2%, 20.1% 각각 증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극동지역은 5.3% 감소하여 좋지 않았다. 약제별 매출을 보면 에프엠씨는 주로 살충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살충제 매출은 평이하며 총 매출에 64%를 차지한다. 선도제품으로는 카보후란, 카두사포스, 비펜스린, 카보셀판, 퍼메스린, 싸이퍼메스린과 제타싸이퍼메스린 등이 있다. 제조제는 2000년에 26%를 차지하는 두번째로 큰부분이며 북미와 라틴아메리카의 회복세로 18.1% 증가했다. 크로마존과 셀펜트라존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카펜트라존과 함께 주요 품목이다. 기타농약은 8.6% 증가했다. **농약정보**